

<가수 하림 씨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 성명>

발 표 일	2025년 5월 14일
발 표 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잘사니즘 문화예술위원회
발 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본부장 고영재

지난 5월 13일, 가수 하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섭외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림 씨의 글에 따르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무대에 섰다는 것이 섭외 취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획 상 출연자 변경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현입니다.

더욱이 해당 행사는 남북 청소년 교류라는 공적 목적의 문화행사였으며, 하림 씨는 낮은 개런티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취지에 동의해 출연을 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스터까지 인쇄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 배제는 예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결정(2017헌마 416)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탄핵당한 윤석열 내란 정권이 예술인을 통제 대상으로 왜곡되게 바라 보았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역시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며, 권리보장 체계를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인촌 장관은 현장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제2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차단한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하림 씨에 대한 섭외 배제를 결정한 기관은 스스로 기관명을 공개하고,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예술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정부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 후보는 이미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해
정책본부에 제안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기구의 운영 독립성 확보,
책임 있는 사건 대응 체계 구축,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배제 사례를 조사하여,
정권 교체 이후 신속히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정책 기반과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책본부에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권력의 통제를 받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이며 민주주의의 거울입니다.
본 위원회는 다시는 예술인이 이유 없이 배제되고,
예술의 자유가 침묵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예술이 자유로운 나라,
광장의 노래가 위협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K-민주주의가 문화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 ,

김구 선생님이 염원하셨던 ‘문화강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2025년 5월 1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잘사니즘 문화예술위원회